

# 녹용의 수급조절 방안

안 덕 균  
경희대 한의대 교수

단 일회적인 인간생명을 강건하게 만드는 약 물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고있는 녹용 은 국민들의 소득증대에 힘입어 그 수요가 나 날이 점증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녹용의 생산과정과 유통 수급면에서 는 언제나 그렇듯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 는 상황에 처해 있다. 생산과정의 현대화와 함 께 수급조절의 획기적인 방안은 생산자와 소비 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1. 생산과정

국내에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가 무려 1만이 넘고 있으나 사육두수가 17만두에 이른다면 이는 생산과정에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급격하게 개인임금이 상승하 는 국가에서 1가구당 17두를 사육해서는 생산 성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늘상 느끼는 바이지만 사슴사육을 전업으로 하는 사슴 선진국에서는 이런 비율로는 도저히 경제성을 살릴 수 없는 정황이며, 국내에서 이 같이 좁은 공간안에서 사육하는 것은 사슴의 관리와 녹용의 생산면에서 양질의 우수약재를

생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많은 농가와 사슴의 장래를 염려하는 생산업 자들이 이미 결성한 단체 조합의 기능을 현대 화하여 대단위 생산체계에 돌입하지 않으면 사 슴대국과의 경쟁에서 대결이 불가능해질 것으 로 본다. 단체나 조합의 민주형태가 개인의 이 익을 우선하기 보다는 집단과 장래를 위해서 순간의 고통을 견디면서 큰 목표를 세워 나가 야만 실현될 수 있다.

## 2. 유통현황

### ① 국산녹용

몇십두에서 최고 몇백두까지 사육하는 사슴 사육가들은 자기의 활동범위 안에서 녹혈을 판 매하거나 혹은 성장기의 녹용을 절단해서 판매 하는 것이 오늘의 정황이다.

이러한 형태는 상품성에서의 낙후뿐 아니라 수급조절을 무시하는 형태이며 외형상 혐오감 을 가져오기도 하고 위생처리과정에서도 문제 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리고 품질면에서 가장 유효한 효능·효과 를 나타낼 적기에 채취하지 못하므로 효과면에서 시기를 상실하므로 품질의 저급화를 초래하

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 ② 수입녹용

뉴질랜드, 캐나다, 중국, 소련 등지에서 수입되는 녹용은 수입업자에 의해서 수입된 후 검사과정을 거쳐서 시중에 유통하게 되어 있다. 일단 수입된 녹용은 수많은 중간 상인들에 의해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조성되어 소비자의 손에 들어 오는데 대개 소매업소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 그들의 욕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넓게 절편한 다음 주주(株主) 측주(側株)를 혼입시키고 그리고 상중하를 다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 소매업자들의 일상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녹용은 원형대로 보고 구입치 않으면 번번히 상인들의 속임수에 놀아나게 마련이다.

현재 중상대를 절편하여 75g 단위로 소포장한 것도 외형은 그런대로 보기에 좋은것 같으나 내부에는 가루나 하대를 혼입한 것을 늘상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상인만 큰 이익을 얻게하고 소비자는 언제나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폐단을 최소화하거나 축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형태아니면 용량과다로 인한 개인의 소비량을 만족키 위해서는 단위 조합이나 적은 단체가 중심이되어 양심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 3. 문제점과 해결방안

### ① 사슴사육

일상적으로 먹고 생활하는 농산물을 위시해서 축산물로 새로운 품종의 개발과 교체는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질서를 일시에 황폐화시키기 보다는 변

화의 개혁방향이 효율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사육가들은 국내 사슴유통의 혼미만을 책할 것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종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우량급을 생산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킬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 ② 녹용의 수급조절방안

해마다 상승하는 녹용의 수요를 통계적으로 관찰하면서 국내에서 우수한 사슴을 대량으로 야산에 방목 사육하면서 수입을 차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는다.

일반 한약재도 그렇듯이 녹용도 사육농가에서 기르고 생산해 내는 과정까지는 모두 농축산물로 고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단 건조하고 가공처리하여 절단 포장한 것은 모두 의약품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1995년 1월 부터는 건조되지 않은 상태의 사슴뿔(水鹿茸)은 일반 축산물로 인정이 되어 모 회사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후 건조시켜서 녹용으로 검사를 얻은 다음 시중에 의약품으로 판매한 예가 있다.

국산녹용인 경우 현재와 같이 지극히 적은 양을 개인상대로 영세하게 판매할 것이 아니라 적기에 채취한 녹용을 각지의 생산농가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위생적이며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건조한 다음 보건복지부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의약품검사소에서 녹용으로서의 등급과 검사를 마친 다음 포장해서 판매한다면 국산과 수입품의 차등을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사슴의 생산자는 현재와 같은 개인상대의 상거래 행위에서 보다 현대화되고 개방적이면서

경쟁적인 체제속으로의 진입이 긴요하다고 보여진다.

지금과 같이 생산능가가 1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지만 이곳에서 생산되는 녹용을 양성화하지 않고 소규모적으로 개개인이나 인척상대의 판매형태는 결국 퇴보를 자초하는 일일 것이다.

소의 수입녹용은 1회에 최소단위 50kg-100kg에서 몇 톤씩 수입되므로 효율적인 관리에 편의성이 있다. 편협한 생각에서는 수입 녹용을 두둔하고 국내 것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러나 녹용은 그 수요의 단위가 상승하면서 공개적이며 지극히 경쟁적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수입상사가 큰 이득을 얻지는 못한 실정이다.

녹용유통의 이원화라는 말은 결국 국내의 생산능가에서 거대화 또는 집단화하여 현실적으로 녹용의 수급조절대상 품목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자의 편에서 나온 착상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만약 국내산이나 외국에서 생산된 사슴뿔이 축산물이 아니고 사슴의 부분적인 개체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며, 국내외산의 사슴뿔을 건조시켜서 한약재로 쓸 때에는 모두 동일한 녹용이지 다른 개체로 분리한다면 그런 모순성이 어디 있겠는가?

한약의 규격화 실시를 앞에 두고 녹용을 한약관리규정대상품목에서 제외시켰다면 사건의 순위상 일차 이차적 분류체계에서 다소 지연이 될 뿐이지 녹용을 한약이 아니라고 도외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정부를 두둔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필자와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며 오로지 국내의 녹용생산이 혁신적으로 개선되거나 현대적인 유통구조를 바라는 안타까움에서 중간적인 입장에서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반복하거나와 국내외산을 막론하고 사슴에서 자란 뿔은 모두 녹용이며 이는 엄연한 한약재의 한 품목이다. 그런데 이것을 축산물로만 생각하고 일반 금수와 같이 생산과 판매를 하는 형태에서는 한약으로서의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약은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규격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내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지 않은 위생적인 처리를 한 것이라야 국민들은 신뢰를 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녹용은 국내외산을 막론하고 인간생명을 치료하는 한약재로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합리적으로 수급조절을 할때만이 국민들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